함평 황금박쥐, 부산서도 인기 '짱' 부산시민들이 4일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센텀광장에서 부귀영화와 복을 상징하는 함평군 황금박쥐 조형물을 구경하고 있다. 162㎏의 순금으로 제작된 황금박쥐 조형물은 가로 1.5m 세로 2.1m 규모로 현재 시가가 70억원에 달한다.

신안 시金치

생산량 절반으로 뚝 예년보다 가격 두배

'섬초'라는 브랜드로 전국적인 명성을 일궈온 신안 시금치값이 크게 올랐다.

'눈을 맞고 혹독한 추위가 온 뒤 생산된 게 가장 맛있다'는 섬초가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아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산지 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생육시기에 비가 많이 내려 어린잎이 물에 잠긴 탓에 재배면적의 50%가 습지피해를 본 게 원인이다.

4일 신안군과 비금농협에 따르면 주 생산지인 비금과 도초면에서 생산되는 섬초는 요즘 서울 송파구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15㎏들이 한 상자 평균가격이 5만원에 달한다. 최상품은 7만원을 호가한다. 이는 예년과 비교할 때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비금농협의 섬초 출하량은 최근 50여 일간 7만600 상자에 그쳐 지난해 19만5천 상자에 비해 12만여 상자나 줄었다.

비금농협 관계자는 "게르마늄 성분이 다량 함유된 섬초는 잎이 두껍고 부드러워 씹는 맛이 좋은데다 당도가 뛰어나 찾는 소비자가 많지만, 지난해부터 생산량이 적어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추세"라면서 "생육시기 습지피해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탓"이라고 말했다.

비금농협은 섬초 재배면적(780ha) 가운데 절반이 넘는 400여ha가 습지피해를 입어 생산량이 예년의 절반을 밑돌고 있다. 도초지역도 사정은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밭과 논에 파종한 시금치 생육시기인 지난해 9월 중순부터 한 달여 동안 이 지역에 내린 강우량은 100㎜가량으로 예년보다 20~30%가 더 내리면서 경작지가 물에 잠겨 어린잎이 녹아버리거나 휩쓸려 나가는 심각한 피해를 봤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장흥 신흥사 '동종' 道 유형문화재 지정

장흥군 신흥사에 소장된 '해남 정방사명 동종(海南 井方寺銘 銅鐘)'〈사진〉이 전남도 유형문화재 304호로 지정됐다.

조선 후기 영조 27년(1751년) 제작된 신흥사 동종은 고려시대 걸작인 탑산사종(보물 88호, 1233년 제작 추정)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지만 고려 종과 비교하면 구경이 넓고 상대(上帶)와 유곽(乳廓) 사이에 범자문과 보살입상이 있다.

종을 제작한 도편수 윤취오와 수재(手才) 윤광형은 17~18세기에 여러 종을 만들었던 장흥 장평면과 장동면 지역의 윤씨 집안에서 사승(師承) 관계를 이어가면서 꾸준히 주조물을 조성해 수준 높은 동종과 금고 등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 신흥사 종은 작품으로서의 가치 이외에도 주조 연대, 관련 인물과 장소, 종장의 연구 등 한국 금속공예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아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됐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황주홍 강진군수

청자산업, 돈 되는 향토산업으로 육성

"5만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더욱 큰 희망을 채워가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황주홍 강진군수의 군정 최대 화두는 '낙후된 강진의 번영'이다. 전남 22개 시·군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자체 중 한곳인 강진을 도약과 성장의 해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억대 소득자 200명 목표

'가난 해방'은 군정 책임을 진 황 군수의 군정 최대 신념이자 철학이다. 황 군수는 "낙후된 고향발전에 꿈과 희망의 씨를 뿌린다는 일념으로 달려온 민선 4기, 3년동안 많은 변화와 성장을 거뒀고, 강진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회고했다.

강진군은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농수축산업의 녹색성장, 청자산업과 청자엑스포, 따뜻한 복지행정, 스포츠 마케팅, 관광명소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업은 '청정 강진'의 경쟁력이자 대표적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전체 경작지의 절반 이상을 친환경 인증재배지로 확대하고 약용작물단지, 우리밀 재배사업 등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인의 희망인 1억원 이상 고액 소득자 200명 육성,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 친환경 축산업 육성 등은 농정시책의 골간을 이룬다.

황 군수는 또 "고려청자 문화특구를 체험 관광지로 개발하고 50여개의 청자공방 유치 등을 통해 강진을 청자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자산업을 돈이 되는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고 강진

청자의 대중화, 세계화에도 나서며 2012년 또는 2013년 강진 청자엑스포를 열 계획이다.

황 군수는 "엑스포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중이며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올 엑스포 개최를 위해 청자특구 조기 완성, 국도 23호선 조기착공, 현대청자미술관, 청자 조형탑 건립 등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복지서비스 제공과 군민 생활안정을 위한 따뜻한 군정도 눈에 띈다. 영세민 무료임대주택 건립,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공직자와 어려운 이웃간 사랑의 끈 맺기 사업 등을 추진한다.

친환경농업 대폭 확대

황 군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마케팅을 비롯해 칠량농공단지 조성, 월출산 주변상태관광 개발 등 지역개발 및 문화예술진흥사업도 역점사업"이라면서 "올해 풍요롭고 살기좋은 지역으로 거듭나는 한해가 되도록 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장성 지역발전협의회 출범 의장에 송인성 전남대교수

장성군이 지역발전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4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이청 장성군수, 장성군 발전협의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군 발전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각 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되고 발전협의회 첫 회의가 열렸다. 발전협의회 위원은 총 16명으로 대학, 연구기관, 경제계, 농업인, NGO, 군의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의장으로 전남대학교 송인성 교수, 부의장에는 보해양조(주) 정종태 공장장이 각각 선출됐다. 간사는 장성군 이상옥 정책기획담당이 맡는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 임기동안 지역발전 및 경쟁력 향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자문역할을 담당한다. 또 기초 생활권 중심의 발전계획을 수립·연구하고 광역경제권 시·도와 시·군간의 교류협력촉진자 역할을 수행한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무안군 김흥철 토목계장 군정발전 공로 대통령상

무안군청 건설교통과 김흥철(50) 토목계장(기술직 6급)이 최근 3년간 중앙부처를 직접 발로 뛰어 특별교부세 78억2천100만원을 확보해 군정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김계장은 지난 1979년 지방공무원 기술직으로 임용된 이후 30여 년간 뛰어난 업무수행 능력과 청렴하고 검소한 성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장기간 표류하고 있던 운남면 소재지 통과 도로정비사업과 관련해 직접 김산 의원과 함께 익산국토관리청, 국토해양부, 국회사무처 등을 80여 차례 방문해 국비 26억2천100만 원을 확보, 광주 국도관리사무소가 지난해 6월 국도 77호선 운남면 소재지 도로정비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강진 지난해 시상·지원금 116억 역대 최고… 전년보다 33% 많아

지난해 강진군이 중앙정부와 전남도로부터 지원받은 시상금과 특별지원금이 116억3천만원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4일 강진군에 따르면 2005년 33억8천만원, 2006년 44억2천만원, 2007년 52억7천만원, 2008년 87억3천만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3% 늘어난 116억3천만원의 시상금 및 중앙부처 특별지원금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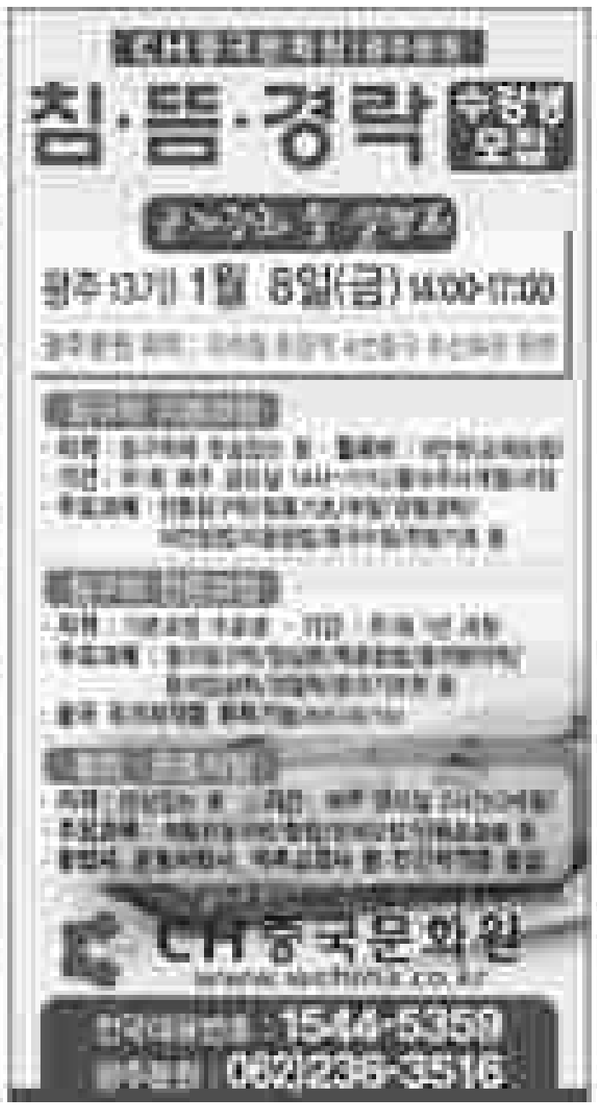
지난해 각종 대외평가 수상실적을 살펴보면 농촌활력증진 사업평가 6억원, 2009 문화관광축제 평가 3억원, 200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평가 1억1천만원 등 총 34건에 23억6천만원을 획득했다.

또 공모·시범·특별 지원사업 실적의 경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6억4천만원, 산림경영모델 숲 사업 20억원, 다산기념관 신축 7억원 등 총 15건에 92억7천만원을 기록했다.

이중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평가 1억1천만원, 지역농업특성화사업 7억원, 산림작물 재배단지 10억원 등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에는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지역사업비로 30억원을 확보해 디지털 TV방송 송신 인프라 구축 및 수신환경 개선 등을 통해 주민들이 제 3세대 텔레비전으로 불리는 고품질의 HD급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군정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지난 2007년 5월 실시한 강진 드림팀제의 활약 덕분"이라며 "올해에도 5만 군민과 800여 공직자 모두가 살기 좋은 강진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